



1. 회사명 : (주)드림투리얼리티
2. 성 명 : 김종철
3. 직 위 : 대표이사

2차원 바코드 삽입기능을 구비한 인쇄제어 방법

“꿈을 현실로’ 라는 슬로건 아래 문서처리 자동화 분야에서만큼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. 이번 수상으로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습니다”

드림투리얼리티 김종철 사장은 ‘2차원 바코드 삽입기능을 구비한 인쇄 제어방법’으로 이번 ‘2002 대한민국특허 기술대전’에서 WIPO(세계지적재산권기구) 사무총장상을 수상했다.

김 사장이 수상한 이 발명은 2차원 바코드를 문서에 출력하기 위한 인쇄제어 기술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을 수정하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마우스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후 2차원 바코드로 출력해 주는 기술이다.

즉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정보를 인쇄제어부에 알려주면, 출력시 인쇄제어부에서는 2차원 바코드로 출력하고자 하는 정보를 분석하여 2차원바코드의 이미지를 생성한 후 인쇄시 자동으로 추가되도록 해준다.

이 기술의 활용분야는 출력된 문서를 재입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서 사용 가능하며, 문서 관리시 입력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처리 프로세스의 단축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.

김 사장은 “미국 GM은 전 세계 자동차 부품조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PDF-417을 표준 바코드로 채택하고 2만5천여 협력업체에 표준바코드 부착을 의무화함으로써 매년 2~3억달러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

김 사장은 또 “이 기술은 현재 조흥은행에서 도입이 결정돼 앞으로 전 문서에 이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2차원 바코드로 처리할 예정이며 기업은행과 해운사 등에서도 도입 상담을 진행 중이어서 다른 금융권에도 자동 파급될 전망”이라고 말했다.

드림투리얼리티는 올해 10억원의 매출을 시작으로 2003년엔 2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. 김 사장은 한글과 컴퓨터, 합산컴퓨터에서 문자인식개발 팀장을 지냈으며 99년 드림투리얼리티를 설립했고 2001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조기업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.